

보성녹차 '세계인의 음료로'

郡, 미국·오스트리아 등 수출 협약

국제유기인증 등 세계화 발판 다져

보성군이 물 들어 미국·오스트리아 등 해외업체와 3번째 녹차제품 수출협약식을 갖는 등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성군은 최근 미국 루스앤젤레스 '존앤제인'(John & Jane) 그룹(회장 김철암)과 녹차제품 수출을 위한 협약식(MOU)을 가졌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보성군과 존앤제인 그룹은 보성 녹차제품의 미국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과 수출 가능 품목 발굴·수출용 브랜드 포장재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존앤제인 그룹 김 회장이 강진 청자 수출에 관한 협약식을 마치고 일본녹차 시장조사를 위해 일본방문을 계획하던 중 보성녹차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신뢰를 갖게 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존앤제인 그룹은 지난해 4월 설립파업률·무역·유통·폐선 등을 취급하는 신생회사로 현재까지 3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보성군은 현재 존앤제인 그룹에 보성녹차 샘플을 보내고 수출가격을 조율하고 있다.

김철암 회장은 "앞으로 계열사 DaJung(다정)을 설립해 미국시장에 전문적인 차집(Tea Shop)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로 확대해 미국 전역 및 캐나다·중남미 등에서도 시장을 넓힐 계획"이라며 "상점의 내부 및 시스템을 보성녹차에 맞춰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성군은 지난 4월 오스트리아 최고의 차 전문업체인 하스앤하스(Haas & Haas)와 녹차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 네덜란드 하스엔하스 매장에서 보성녹차를 전시하는 등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군은 통한 녹차 해외수출은 지난 5월 말 녹차제품 8t(2800만원)이 처음으로 미국 농식품 도매업체에 수출됐다. 민간부문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미국 등지로 수출됐으나 정확한 수출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

보성녹차는 미국·유럽·일본 등 국제 유기인증과 군 수품질인증제 시행으로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다졌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이 보성녹차 제품이 미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큰 물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해외수출을 위해 보성녹차의 우수성과 안전성, 고급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남해안 '해일고' 증가율, 동해의 3배

올해 대형 태풍 발생 가능성...연안 침수 등 대비해야

남해안의 해일고(관측된 해수면 높이에서 조석에 의한 해수면 높이를 제거한 값) 증가율이 동해안보다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해양조사원은 지난 30년 이상 관측된 동해안과 남해안의 해일고 변동성을 산정한 결과 동해안의 연간

최대 해일고는 매년 평균 2.7mm 증가한 반면 남해안은 매년 8.1m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남해안 연간 최대 해일고의 평균값은 36.6cm로 조사됐으며, 남해안 최대 해일고의 68%는 태풍 발생시기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동도 입구 시멘트 저장시설 내달까지 철거

市 속박·근린공원으로 조성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내 오동도 입구에 위치한 쌍용시멘트 저장시설 2기의 철거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가설 방진망을 설치해 철단

및 파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완전 철거된다.

철거되는 주변 부지는 25층 300실 규모의 고급숙박시설과 근린공원을 갖춘 박람회장 부지로 조성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해양조사원은 남해안 해일고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2002년 러시아 2003년 매미 등과 같은 대형 태풍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강한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해일로 인한 연안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단 및 인양철거(Diamond Wire Sawing) 공법으로 철거 대상물에 가시설을 설치한 후 다이아몬드가 박힌 와이어를 구동장치로 회전시킴과 동시에 뒤로 끌어당겨 절단시킨다.

한편 지난 1969년 시멘트 생산을 위해 만든 쌍용시멘트 저장시설은 지름 20m·높이 50m 규모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화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감정가 이하

- 범위건물, 상무지구 중심지, 대지 1010m²(305평) 건폐 2996m²(906평) 공시지가 27억 3천 평도 41억
- 동구 6자선도로와 3자선 도로 코너 대지 1948m²(589평) 건폐 2109m²(637평) 공시지가 27억 3천 평도 42억
- 신안동 상업지 310m²(94평) 공시지가 3억 평도 2억 4천
- 대목동 자연녹지, 대지 574m²(16평) 공시지가 5억 평도 5천 3천
- 대지, 두암동 소방도로 275m²(83평) 1억 5천
- 종장로 5층 건물 대지 33건평 168 평 공시지가 3억 평도 5억
- 모양시설재활 학원군 월아파트 토지 11199m²(3370평) 건물 1442평 경매감정가 18억 평도 6억
- 금남로 창업길과 주택 영업용 적합 공시가 매도 8400만
- 순천시 대지 170 건폐 243 평 공시지가 9억 평도 6억 8천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폐 206평 6층 건물 5억
- 광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5건평 173 대출 3억 평도 6억 5천

매도·교환

- 충 상가주거 신안동 4차선 도로변 대지 184m²(56평) 건폐 461m²(136평) 대출 1억 평도 2억 5천
- 전원주택지 주민유원지 부근 196평 대지 8400만원
- 목동·도밀·상가·매곡동 대지 643m²(195평) 건폐 941평 전 2억 3천 월 670 대출 10억 평도 16억 5천
- 나대지 혁선 사거리 월곡동 주공 아파트 입구 준주거지 472m²(149평) 공시가 4억 3천 평도 5억 3천
- 학순 도곡은천 관리자 384평 교환 가능 3억 2천
- 하남2지구 대지 62평과 임곡동 준주거지 265평을 합하여 건물과 교환 가능 5억 3천
- 폐월동 서광주역 부근 2314m²(702평) 8억 2천
- 광산구 우산동 2220평 하자장동 다용도 22억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187평 공시가 9억 7천 평도 6억 2천
- 송정리 소촌동 지구단위지역 2종주거지 403평 4억
- 범점, 회성군 사령부근 대지 288 건폐 32평 8500만원

주택·아파트·임대

- 아파트·연세동 현대 201㎡ 대출 1억 교환 가능 1억 5천
- 주택·회성군 사령부근 소재지 387m²(101평) 2400만원
- 금남로 5가 사거리 출입 2층 건물의 2층, 3층, 4층을 분리하거나 합하여 병·의원 임대, 조건은 협의함.

광양 종합병원 준공 '난항'

지난달 준공예정이던 '광양 종합병원' 공사가 자금사정 악화와 시공사 변경·체불임금 등 문제로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 종합병원' 공사현장에서 일한 최모(42·경기도 성남시)씨 등 노동자 4명은 지난 21일부터 건물 20여m 높이 옥상에서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

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에도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자살소동까지 벌여 경찰과 119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6일부터 5월 말 까지 병원신축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 3000여만원 중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

자금난에 시공사 변경·체임 문제 등 산적

근로자 4명 "체불 임금달라" 옥상 농성

자금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종합병원 준공과 개원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광양시 광양읍에 신축중인 '광양 종합병원'은 지상 4층·지하 1층(48 병실·177 병상) 규모로 지난해 9월 착공됐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도·농 협력 협력, 농촌 조합원에 침·뜸 무료봉사



곡성농협(조합장 빙기운)과 광주 하남농협(조합장 박종면)은 최근 곡성농협 회의실에서 원로 조합원 130명을 대상으로 '침·뜸 무료 봉사'를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도·농 협력 협력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봉사는 침술의 대가인 김남수옹의 제자 30여명이 참여했다.

빙기운 조합장은 "이번 침·뜸 봉사활동은 조합원과 농협이 상

생하는 농협 운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며 "하남농협 조합장과 상의해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거북선형 유람선 명칭 '여수 거북선' 결정

여수시가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북선형 유람선<(조감도)>의 명칭이 '여수 거북선'으로 결정됐다.

여수시는 시 흠페이지를 통한 208건의 명칭공모와 함께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티커 투표 결과 다수를 차지한 '여수 거북선'을 유람선 명칭으로 정했다.

여수시는 유람선이 본격 운항되면 해상 관광투어를 통한 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박람회의 성공 개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동도와 돌산대교, 소호 흐르장 등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야간 유람선이 운행되면 여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



공하게 될 것"이라며 "유람선에 LED조명을 활용한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해 야간에도 운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금산공인중개사

T. 881-5888 H. 011-801-5354

(서평구 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공장 매매

하남공단 4차선 9번로변

• 대지 4,959m²
(1,500평)

• 건물 2,176m²
(658평)

• 호이스트 5t, 10t
(총고 9m)

• 매매가 22억 5천만

평동공단내 2번도로변

• 대지 3305m²
(1050평)

• 건물 1983m²

• 공장 총고높이 : 6m~8m

• 호이스트 없음
(설치가능)

• 전기 : 300kw

• 매매가 : 13억원

전자조립, 물류창고

기타제조업 적합

금산공인중개사

T. 881-5888 H. 011-801-5354

(서평구 주역 건너 순환도로변)